정회선의 생활이야기

##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답니다!

안녕하시지요? 엑스포 관람은 하셨는지요?

저는 '동물농장' 이라는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봅니다. 신기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 재미있기도 하고, 가여운 처지에 놓인 동물들의 사연으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연에 더욱 관심이 갑니다. 병들고 상처 입은 강아지, 공장 한복판에 둥지를 튼 부엉이, 인가를 찾아든 각종 동물 등 희귀한 사례는 긴장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이런 희귀종을 사랑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때 우리 사회에 춘란 열풍이 몰아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통 춘란은 대접받지 못하고 생존여건이 어려운 이상 품종이나 변종에 해당하는 난들이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환경 중시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 생물종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배려를 하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환경보호의 기본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무생물마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소수 종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 이주민, 노숙자, 동성애자, 희귀병 환자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썩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식물의 생존권이 중요하듯 소수자, 약자, 별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적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별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지지리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얼짱도 아니고 S라인도 아닌 사람들도 더욱 당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자연환경과 함께 인간사회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식물, 사람,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모든 인간이 서로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여수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2. 5 정회선이 드립니다.

## 〈위원회 이야기〉 5월 여수환경운동연합 위원회 구성 보고

집행위원님들 뿐 만이 아니라 회원님들과 함께 위원회를 꾸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함께 위원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위원회에서는 5월 11일 정기회의를 가졌고 5월 푸름이 어린이 생태 탐사단 진행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5월 푸름이탐사단은 채영숙 집행위원님께서 인솔하셔서 흥국사의 보물들과 생태를 탐사했습니다. 또, 부영여자고등학교 사진동아리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산단환경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ISO26000사회책임 예비 전문가과정의 평가를 했고 차기 모임에는 원유부두에서부터 송유관공사까지 방문 조사 계획을 잡았습니다.

회원재정위원회에서는 5월 11일 회의를 가졌고 '아름다운 이야기 나눔터(일일호프)'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6월 말과 8월 말에 하자는 두 가지의 시기조율이 있었고 장소섭외가 된다면 6월 말에 하기로 했습니다.

## 이 달에 만난 회원

회원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점심과 저녁에 만나요

황요순 회원님과의 점심식사 지난 5월 8일 점심시간에 황요순 회원님을 만났습니다. 황요순 회원님은 몇 년전에 환경연합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신적이 있고, 현재는 자문위원으로 환경연합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시다. 지금은 바다에 관심이 많다고 해양환경위원회 위원을 희망하신다고 한다. 든든한 버팀목을 또 한분 얻었다. 감사. 감사점심을 먹으면서 지역정치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보궐선거를 되돌아보면서 지역민들의 사고와정치의식을 생각해보았다고 하시면서 지역정치는 시민들이 이해와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특히 환경을 가치로 둔 녹색당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주셨고, 정치 뿐만아니라 환경운동도 시민의 품속으로 들어가야만 성공할수 있다고 하셨다. 앞으로는 사무실에 시간을 내어서 자주 들리시기로 약속하셨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에게도 언제나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에는 술한잔 하자고 하셨다. 감사해요!! 회원님.

## 고마운 손길들(5월)

(주)에코필 강관종 강명호 강성군 강성언 강성원 강성진 강용기 강용주 강윤성 강의수 강재헌 강진산 강흥순 고병문 고선호 고성환 고영곤 곽영리 곽정연 구동현 구제혁 권인홍 권정민 권정민 김경만 김경완 김경호 김경화 김권기 김금례 김금주 김기태 김남규 김남중 김대성 김대용 김대일,이수정 김대천 김대희 김덕이 김동우 김동채 김동하 김두희 김래봉 김만수 김명근

김명선 김명진 김미경 김미란 김미애 김미진 김병한 김봉석 김봉주 김상수 김상우 김석호 김선종 김성곤 김성곤 김성국 김성규,황은하 김성언 김성열 김수진 김류경 김숙자 김숙희 김언철 김연자 김연주 김영란 김영란 김영문 김영진 김영철 김영호 김영환 김오경 김오곤 김용기 김용하 김우인 김유미 김유신 김유진 김유진 김유화 김윤홍 김은옥 김은정 김은희 김의

김인섭 김일주 김장규 김정선 김정순 김정일 김종기 김종산 김종석 김종수 김종태 김종헌 김종현 김종형 김종호 김종훈 김준태 김중태 김지순 김지연 김진숙 김진영 김진화 김진희 김천미 김천종 김태성 김태형 김태희 김하늘 김학중 김학태 김한주 김해성 김행숙 김현수 김현수 김형규 김형률 김형애 김혜열 김혜영 김혜옥 김혜정 김호진 김희권 김희수 김희철

나선주 나승철 나화주 나경원 남선희 남정완 노인호 노평우 라성현 류성준,최순주 류재형 문갑태 문동석 문병기 문복지 문승하 문연희 문영홍 문우열 문은태 문재식 문정희 문희찬 박경근 박경호 박근호 박남옥 박대오 박동철 박명렬 박병재 박병조 박병화 박복재 박상규 박상준 박상표 박서아 박서영 박성은 박성환 박소운애 박수진 박신숙 박연정 박영석 박용순 박용하

박우순 박은현 박인순 박정숙,홍순근 박정순 박정임 박정철 박종선 박종준 박지영 박지형 박진주 박창서 박철훈 박춘걸 박한철 박현욱 박형곤 박형규 박형길 박효준 반도기획 배선주 배태진 백부광 백선희 백철현 백형주 서미화 서선명 서성전 서종원 서현식 설준규 성동재 성해석 성혜란 성희영 손옥규 곽시영 솔샘교회 송광호 송숙영 송지훈 신광준 신남구 신미경 신상훈

신우철 신창윤 신향진 신현출 심재관 심재정 안교주 안상희 양광섭 양미경 양세열 양재원 양정인 양진서 엄익상 오경희 오미영 오승택 오영길 오철곤 옥은희 우상수 원유준 유경선 유규봉 유명희 윤광종 윤상묵 윤운길 윤재삼 윤창한 윤철중 윤형호 이강혁 이건진 이경영 이광임 이광열 이기운 이남동 이남주 이덕순 이동길 이문식 이미선 이민종 이병철 이복기

이상율 이선행 이수헌 이승로 이승우 이연주 이용민 이원교 이원희 이인옥 이재철 이정석 이정연 이정인 이정철 이종균 이종섭 이준상 이춘호 이행선 이현종 이현주 이현준 이훈 이석희 이정화 이종악 임진 임치택 임현자 임호상 임갑종 장대홍 장덕수 장두익 장미영 장병기 장선심 장옥숙 장은종 전철희 전태식 전형성 정광석 정권희 정길호 정대훈 정득모

정병필 정비취 정선국 정성권 정숙희 정영민 정영호 정용헌 정은숙 정재종 정정단 정종엽 정채삼 정채영 정채훈 정치종 정태주 정형봉 정형자 정회선 정흥호 제희택 조애란 조경래 조규만 조성호 조애숙 조예린 조예원 조윤옥 조천래 주현서 주현준 주영진 주원석 주재연 진정미 진철희 진광화 진달래 진성문 진수길 차동호 차중현 채영숙 천상국 천현식 최규만,하미영

최병두 최병수 최병은 최석현 최성준 최은지 최은희 최준수 최준호 최진우 최철호 최철훈 추용엽 하나미 하두종 하용식 하혜순 한강석 한승희 한원석 한정우 한해광 한효은 홍상원 홍석봉 홍성환 홍순갑 홍채욱 황광식 황보연 황성춘 황종현 황치호 황현수 황형규 강대영 고일현 곽영송 권은진 김경옥 김근희 김남익 김민철 김상욱 김우현,김영아 김원규 김정윤 김천수

김형역 김혜민 박희진 박명숙 박상춘 박정열 박중현 방찬숙 사경신 서공춘 서병군 송진근 심경섭 안정숙 이정주 이정훈 장응선 장종익 장철호,박영미 정동진 정설희 정형식 제정화 조혜영 주진희 주현정 최종기 추인준 황상규 황요순 강혜경 공영삼 김가현 김계환 김대우 김동현 김미연 김미영 김병철 김성진 김순의 김영수 김영숙 김영훈 김옥규 김현석 김홍렬 김회근

김회종 노유리아 명영숙 박가영 박상준 박인준 박종숙 박형채 서민용 서중규 서현아 송재욱 송주석 양세혁 오동진 원정재 이신임 이오성 이용길 이준 장대준 정봉현 정용준 정종훈 정태균 조대성 조삼훈 조환익 채옥희 최동욱 최준영 한준협 한창진 허형환 이상훈 김은희 박유화

## 2012년 5월 신규회원

3일 : 천현식 회원님 (정비취 활동가 추천)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29일 : 김미리 회원님(정비취 활동가 추천)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7일 : 김영대 회원님 (정회선 의장님 추천)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가입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수환경연합의 다양한 활동들 함께 해 주세요~

## 2012년 4월 재정보고

(단위:원)

| 수입 | | | 지출 | | |
|---|---|---|---|---|---|
| 회비 | 일반회비 | 6,175,000 | 인건비 | 상근활동비 | 4,040,000 |
| | 특별회비 | 250,000 | | 상여금 | - |
| | | | | 복리후생비 | 300,000 |
| | | | | 4대보험 | 506,930 |
| | | | | 퇴직금 | - |
| | 소계 | 6,425,000 | | 소계 | 4,846,930 |
| 사업 | 회원사업 | - | 운영비 | 출장교통비 | 167,100 |
| | 행사사업 | 1,900,000 | | 제세공과금 | 606,070 |
| | 재정사업 | - | | 소모품비 | 21,500 |
| | | | | 통신우편비 | 70,690 |
| | | | | 자료구입비 | - |
| | | | | 차량운영비 | 221,000 |
| | | | | 집기비품비 | - |
| | | | | 회의경조비 | - |
| | | | | 차량보험 | 72,020 |
| | | | | 소계 | 1,158,380 |
| | | | 사업비 | 회원사업 | 754,860 |
| | | | | 행사교육 | 1,635,840 |
| | | | | 재정사업 | - |
| | 소계 | 1,900,000 | | 소계 | 2,390,700 |
| 잡수익 | | - | 잡비(차익금상환) | | 5,500 |
| 수입계 | | 8,325,000 | 지출계 | | 8,401,510 |
| 전월이월금 | | 13,213,376 | 차월이월금 | | 13,136,866 |



마음보다 반짝이는 참여, 작지만 큰힘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682-0610~1

# 물·맑은·동리

http://yosu.kfem.or.kr

**발행처**:여수환경운동연합 **주소**:전남 여수시 신기동 20-9 (2층) **전화**:(061)682-0610 **팩스**:(061)691-0680 **E-mail**:yosu@kfem.or.kr

순천환경운동연합 **주소**:전남 순천시 중앙동 61-34(4층) **전화**:(061)755-7305 **팩스**:(061)755-7365 **홈페이지**:yosu.kfem.or.kr

## 여수시민의 식량이 매연인가? 여수산단 내 석탄발전소 건립계획 당장 취소하라!!

최근 여수산단내 한양, 호남화력+GS에너지, 금호석유, 남해화학에서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추진하거나 계획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중 한양은 1000MW(1기)건설계획을 진행중이며, 호남화력+GS에너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유연탄 발전소를 재차 건설할 계획이라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여수산단에 석탄발전소가 계속해서 건설된다면 여수산단은 대기환경오염으로 죽은 땅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여수산단내 석탄발전소 건립 계획을 즉각 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여수산단의 석탄발전소 건립 계획은 분명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여수시의 해양환경보존과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여수시의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이라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도 반하는 사업이다. 그뿐만 아니다. 여수시는 2012년 온실가스 감축 지역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여수시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도 하다.

2006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전국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14%)이 경기도(16.7%)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양시가 1위, 여수시가 5위로 조사되었다.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특성상 에틸렌, 벤젠, 염소 ,수소, 고압가스 등 다량의 유독물질을 취급하는데다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을 내뿜는 탓에 이른바'죽음의 땅'으로 학계에서는 보고되기도 한다. 항상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수시에 다른 발전방법들보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증설된다면 여수의 환경은 어떻게 될까?

석탄은 화석연료 가운데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으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삼분의 일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부분 배출량의 70%에 이르러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최대주범이자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발전사업이며, 대기를 오염시켜 산성비와 스모그의 원인을 제공하여 고독성 수은을 배출하며, 발암물질 중금속인 크롬이 포함된 석탄재로 토양오염이 되기도 하다. 더불어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배출가스를 내뿜기도 하고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에서도 폐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을 계속 증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전남 해남군의회와 충남 서천군에서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포기결정을 내린바 있다. 석탄발전사업자의 '주민보상' '지역발전' '세수확장' 등 달콤한 유혹을 과감하게 이겨내고 '생명과 평화', '환경과 생태계 보전', '주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숭고한 결의라 아니할 수 없다.

5월 12일부터 여수시민이 15년 동안 준비해온 세계박람회가 개막되었다. 우리는 세계박람회가 환경을 테마로 주제구현에 충실한 환경박람회로 치루어질 것을 희망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민들은 세계인에게 환경도시로 웅비하는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93일간의 일상활동을 조금 불편하지만 아끼고 줄이면서 아름답게 견디며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여수시민들과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부 여수산단 일부업체들이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해 종합 백화점'인 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여수산단이 과연 여수시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여수시의 환경도시비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에, 여수산단 일부 입주업체들에게 묻는다. 지금껏 환경개선에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마라!!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통해 회사는 막대한 이윤을 얻겠지만 여수시는 또다시 환경오염의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책임은 분명 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반 환경기업으로 오명을 남기게 할 것이다.

또한, 여수시는 대규모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하루속히 천명해 주길 바란다. 우리 시 정책이 친환경정책으로 진일보되어 시민의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기를 희망한다.

2012년 5월 14일

여수환경운동연합

## "자연의 벗" 개도 기행 참가자 모집

기다리고 기다리던 6월 "자연의 벗" 기행 안내입니다.

이번 기행은 북쪽에 여수반도, 북동쪽에 돌산도, 남동쪽에 금오도, 반대쪽 고흥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수많은 섬들을 거느린다' 는 뜻으로 '덮을 개(蓋)를 써서 불리게 된 "개도"로 떠납니다.

백야도에서 30여분 배를 타고 모전항으로 가서 육고녀와 호령제를 거쳐 여석항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지난 "금오도 둘레길"기행으로 삭신이 쑤셨던 분들은 조금 편하신 기행이 될 듯 합니다. ^^;

설레설레 천천히 걸으면서 개도의 아름다운 생태를 느껴보실 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일시 : 6월 9일 토요일
2. 장소 : 화정면 개도
3. 출발 장소 및 시간 : 여수시청 집결(9시 30분) 후 백야도 선착장으로 이동 (10시 30분) 대형 카훼리 3호 탑승
4. 준비물 : 참가비 10,000원, 도시락, 간식, 간편복, 모자
5. 참가안내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홈페이지 안내 http://yosu.kfem.or.kr/

전화번호 안내 061-682-0610

# 알립니다.

## 1. 환경운동 차량 구입 모금 "십시일반"

(목표액 : 2500만원) 참여요망 - 현재 10,196,600원 돌파

문갑태 정비취 김준태 이문식 조환익 장대홍 윤재삼 정회선 김태성 김경완 장철호 박영미 이강재 장병기 박근호 성혜란 조천래 최종기 정선국 이재석 성희영 유광수 양광섭 박형곤 홍순근 박창서 신상훈 김상일 김회종 박경호 이현준 박상표 이득섭 김정일 진성문,황명선 공영삼 이복기 이상율 오동진 권인홍 황성춘 정길호 박찬숙 오애란 진수길 이광식 오준묵 김경만 전선숙 고일현 문대석 류중구 김동호 우창정 김병철 박상춘 김래봉 김원균 안상희 배선주 설동재 나승철 김대희 오정희 최준수 강재헌 한해광 나선주 김가현 사공춘 천상국 함께하는은현교회(김완규 담임목사)성도 부활절 감사헌금 신창윤 이선행 정흥호 김혜진 채영숙 여수여중환경교육강사비네이버 해피빈 모금 306,600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00년도에 회비를 적립해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2012년 현재까지 12년 동안 줄곧 이 차량을 운행해 왔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은 환경운동의 현장에서,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의 현장에서 필요한 발이 되었습니다. 광우병반대 촛불현장, 4대강, 새만금 매립반대, 핵발전소 반대, 비리정치인 퇴출, 친환경무상 급식, 에너지 조례, 노무현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청소년 환경교육, 여수국가산업 단지 환경안전사고 대책, 해양환경보전운동, 시민 도서생태기행, 폐선부지 푸른 길 운동본부 등과 같은 대한민국과 여수지역의 현안에 가장 빠르게 먼저 참여할 수 있었던 기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늙듯이 이제 저희와 동고동락했던 스타렉스가 노후화되어 안전상과 환경상의 이유로 처분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현재의 유지비용과 활동을 위해서는 회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저희의 입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규차량구입 모금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위에는 환경 운동을 하면서 대기오염과 자원고갈 등 환경운동과 역행하는 차량을 왜 구입 하느 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다든지 반(□)환경 기업에서 폐수를 방류했다든지 하는 시민들의 신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또한 푸름이 어린이 생태 탐사단과 답사기행의 환경교육을 위해서 차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의 차량을 구입하는데 도와주세요.

[참여방법]

| | |
|---|---|
| * 기간 : 2012.3.12-9.31 | * 모금목표 : 2,500만원 |
| 1) 개인 1구좌 10만원 일시불, 약정 | 2) cms1구좌 1월 1만원 약정(10개월) |
| 3) 기타 후원금 가능. | 4) 입금계좌 : 농협 629-01-236285. 여수환경운동연합 |

## 2. 여수 강흥순 국장 살림 돕기(약칭 : 강살림) 제안

여수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조환익입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살림꾼 강흥순 국장 살림 돕기(약칭 : 강살림)를 제안합니다. 전국환경운동연합 임원, 활동가 분들과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흥순 국장이 올해 3월부터 안식휴가를 신청하고 한옥학교 대목수과정, 여수에서 서울까지 국토종단을 해야 하는 환경재단 임길진NGO스쿨 시민사회리더쉽과정 등을 수강하며 3명의 자녀 육아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소요되는 비용만 600만원이 넘는 교육과정을 신세지지 않고 혼자서 감당하겠다고 길을 나선 강흥순 국장에게 전국환경운동연합 임원, 활동가 분들과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강흥순 국장 살림 돕기 (약칭 : 강살림) 참여방법**

1.방법 : 6개월간 월 1만원씩 후원 또는 일시불 5만원 후원
2.일시불 : 국민은행 781002-01-020988 (예금주 : 강흥순)
3.CMS :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은 6개월 1만원 추가인출 (비회원은 임시등록)
4.알림 : 여수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및 회원소식지에 명단 공개
5.문의 : 조환익 (이메일 : chohi@kfem.or.kr, 문자 : 010-7979-0610)
6.기타 : 후원하실 분은 조환익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순 국장 응원 : chohi@kfem.or.kr, 010-3244-0288, 여수환경연합 홈페이지

## 3. 여수환경연합 청소년 자원봉사 참가자 모집

여수환경운동연합에서는 회원과 시민들의 청소년 자녀들에게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여가 가능하신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식지 자원봉사
- 소식지 발송 일정 : 매월 말~초 토 · 일요일 오전 10:00 ~ 12:00 (3/31, 4/29, 6/2, 6/30, 9/1, 10/6, 11/3, 12,1)
- 장소 :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실
- 내용 : 물맑은 동리 소식지 발송업무, 환경교육강좌(함께사는길)
- 자원봉사 시간 인정 (지속적 참여가 힘들어도 1회의 참여도 가능)
- 신청 기간 : 3월 -4월,
- 활동기간 : 3월 31일(토)부터

2. 푸름이 탐사단 자원봉사
- 푸름이 탐사단 일정 : 매월 4째 주 토요일 09:00 ~ 16:00 (3/24, 4/28, 5/26, 6/23, 7/28, 8/25~26, 9/22, 10/27, 11/24, 12/22)
- 장소 : 우리 여수 곳곳
- 내용 : 푸름이 어린이 생태탐사단 도움과 함께 생태체험학습활동
- 자원봉사 시간 인정 (지속적 참여가 힘들어도 1회의 참여도 가능)
- 신청 기간 : 3월 - 4월,
- 활동기간 : 4월 7일(토)부터
- 신청 및 문의 : 사무국(061-682-0610)

# 이모저모

### "자연의 벗" 5월 6일 금오도 기행 다녀왔습니다.

아주 화창한 날씨 속에서 기행을 잘 마쳤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들어가면 1, 2 코스를 먼저 둘러보고 3~5 코스를 갈 수 있거나 택시를 이용하여 3코스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행은 사선을 예약했기때문에 5,4,3 코스 순으로 비렁길 새로운 구간을 꼭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비렁을 좌측으로 끼고 돌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는데요 동백나무 숲이 너무 아름다웠던 금오도였답니다.

### 푸름이 탐사단 기행문 -홍성우-

오늘은 한달 내내 기다리던 푸름이 생태단을 하는 날이다.
이번에는 백야도를 시내버스로 타고 이동했는데 물론 다리는 아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니 정말 20분이 쏜살같이 지나간 거 같았다.
우리는 백야도를 도착해 산에 있는 바위가 백호를 닮아서 이름이 백호산의 둘레길을 갔다. 가면서 내가 거의 모르는 곤충과 식물들이 많아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 꼭 다 알고 한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들이였다.
가면서 지게를 들고 가시는 할아버지, 밭을 일구는 할머니, 오염이 되지 않은 깨끗한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니 벌써 우리가 밥을 먹을 1전망대가 나왔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도시락을 펴허겁지겁 먹었다. 나도 참~배가 고팠던 것 같았다. 하지만 승하는 젓가락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였지만 뒤에 1, 2, 3학년 일행이 도착해야 선생님께 젓가락을 얻을수 있었다. 그때는 정말 맛있었던것 같았다밥을 다 먹고 우리는 숨박꼭질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숨는지~결국 내가 거의 술래였다.
신나게 놀고 출발하는데 식물에 나무이름표를 하나씩 달고 나니 우리에 흔적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다음에 또와서 이름표를 확인할꺼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색달라졌다. 아, 그리고 나뭇잎 글짓기를 했는데 난 방금 도롱뇽이 계단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나왔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선생님께서 느낌점을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잘 대답을 못했지만 지금이라면 할수있을껏 같다.
자연은 자기가 느껴보고 직접하지 않으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많은 생물들을 직접느낄수 없다.얼마나 예쁘다는걸 말이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내 가슴은 무언가로 채워진것 같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2012년 4월 29일

### 20기 전국신입활동가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취 활동가입니다.
5월 21일부터 4박 5일간 진행된 <20기전국신입활동가수련회>를 다녀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꿈 용기 비전을 갖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마라톤식 강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강의부터 시작해서 예산감시운동까지 많은 강의들을 듣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첫 날은 전국사무처에서 강의를 듣고 홍대에서 모임을 가졌고 둘째 날부터는 천안에 있는 <광덕산 교육센터>로 이동하여 2박 3일을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많은 강의 중에서 천안아산환경연합 차수철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조직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는 어떤 운동을 할것인지 생각하세요."
제가 환경연합에 들어온 지도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운동에 지역사회운동에 열심인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운동을 저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다는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역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에 앞제쳐놓고 달려들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정체성을 우선 확립하고 나서야 비로소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과연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조직인가, 나는 이 조직에서 어떤 운동을 할 것 인가.' 이번 신입활동가수련회에서 제 자신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환경운동연합'의 '여수지역활동가'로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활동가수련회를 다녀오기 전의 저의 뭉뚱그려진 덩어리들이 지금은 하나하나 제 갈 길을 찾고 있는 것같은 느낌입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흐리더니 지금은 천둥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수는 정말 아열대기후에 접어든걸까요? 무서운 생각이 들며 '환경운동'은 미래지향적인 운동임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만들기 위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련회에 참가하게 해주신 국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정비취 활동가



# 수장 위기에 처한 비경, 용유담

글 : 이철재(초록정책실) 담당 : 초록정책실

### – 국립공원 지리산에 141미터 대형댐 추진, 4대강사업 실패 감추기용

2007년 차태현 주연의 <복면달호>란 영화가 있다. 로커를 꿈꿨지만 '봉필'이라는 예명으로 트로트 벼락스타가 된 봉달호(차태현 분)는 자신도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상황에서 스타가 된 자신을 부러워하는 여주인공 차서연에게 가수가 될 때까지 노력하라는 의미로 인디언들의 100% 기우제 성공기를 이야기 들려준다.

인디언들의 기우제가 100%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란다. 삼국지의 제갈공명처럼 천기를 읽는 능력이 없다면 비가 올 때까지 염원하는 인디언들이 어찌 보면 현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는 많아도, 적어도 걱정이었다. 특히 농경민족에게 비는 절대적이다. 파종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반대로 수확기에 태풍이라도 불라치면 애써 가꾼 곡식이 썩어 수확을 못하게 되니 비는 그야말로 천사와 악마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 – 신령한 기운이 깃든 용유담

비가 오지 않아 대지의 생명이 말라 죽을 때 세인들은 하느님에게 비를 기원한다. 일반적으로 기우제의 제장은 지방의 수장이거나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이들이 맡는다. 부정 탈 수 있는 온갖 언행을 삼가고 지성을 다한다. 또한 기우제는 어디에서 지내는 가도 매우 중요했다.

기우제를 지내는 곳은 각 지방마다 가장 신령스러운 곳으로 대부분 설화 또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경남 함양군의 용유담 역시 기우제를 지낸 곳으로, 아홉 마리 용의 전설이 담겨 있다.

용유담은 지리산 칠선계곡, 한신계곡, 백무동 등 아름다운 계곡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합류돼 흐르는 경남 함양의 임천강(엄천강) 상류부의 바위로 이뤄진 깊은 연못이다. 작년 12월, 문화재청은 이곳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국어사전에서 '명승'은 '훌륭하고 이름난 경치'라 제시하고 있으며, 위키피디아의 정리에 따르면 "명승(名勝)은 지방지정문화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경치가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법률적 의미까지 설명하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명승에 대해 "경관의 국보"라 말한다. 즉 국보급 경관이라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보도 자료에서 "「함양 용유담(龍遊潭)」은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과 휴천면의 경계에 있으며, 지리산의 아름다운 계곡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합류되어 형성된 큰 계곡으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아홉 마리의 용이 놀았을 만큼 연못의 규모가 크고 수심이 깊으며, 용이 남긴 흔적을 연상시키는 암반과 배설물을 연상시키는 바위들이 있어 아름다운경관을 나타낸다"고 치켜세우고 있다.

또한 "용유담은 신선이 노니는 별유천지로 예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여름이 되면 각처의 피서객들이 휴식을 위해 모여드는 곳"이라면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어 "조선시대에 비가 부족하면 관아가 주도하여 기우제를 지낸 대표적인 장소로 함양군수로 있었던 김종직(金宗直)이 용에게 비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기우제를 지낸 후 지은 시가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 문화 명승지"라며 역사를 말하고 있다.

용유담은 생태,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곳에는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주요 생태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지리산둘레길 제4구간(함양 금계~동강)이 용유담을 포함한 엄천강을 따라 형성돼 있다. 더욱이 이곳은 국내에 얼마 없는 특이 지형을 보이고 있어 학계가 높은 관심을 갖는 곳이다. 용유담에는 기기묘묘한 기반암이 넓게 펼쳐져 있고 움푹 파인 바위를 흔히 볼 수 있다.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는 이를 "포트홀(Pothole)"이라 하면서 "포트홀은 기반암의 오목한 부분에 들어간 자갈이나 모래가 물살을 따라 돌며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절경이다. 이러한 회전운동이 계속 되면 오목한 부분이 점점 깊게 파이면서 수미터의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오교수는 또한 "지리산은 18~19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리산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학계에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용유담이 지리산 생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용유담은 강원도 인제 내린천, 경기 가평군 가평천 등 한국에서 몇 되지 않는 포트홀(침식지형)지역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연구적 가치에 문화, 역사적 배경과 귀중한 생태적 가치 등 복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유담 자체를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보전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것이 오교수의 조언이다.

### – 국보급 경관이 수몰될 판

이러한 용유담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된 것은 올 초부터다. 지난 1월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절용 지리산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으로 용유담을 명승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용유담이 위치한 경남 함양군도 재해 · 예방용 문정댐 건설 예정지라는 이유로 같은 요구를 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명승지정을 보류해 둔 상태다. 오는 6월 말, 용유담은 명승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명승으로 지정되면 살아남겠지만, 제외될 경우 이곳은 지리산 댐에 의해 수장될 위기에 처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댐의 공식 명칭은 문정 홍수조절댐으로 용유담 하류 3.2킬로미터인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위치한다. 계획된 지리산댐의 높이는 50층 규모로 141미터에 달하는데, 평화의 댐 125미터보다 높아 국내에서 가장 높은 댐이 된다. 넓이 역시 869미터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댐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리산댐은 홍수 조절용 댐이라는 명목 하에 '간이 예비타당성조사'가 5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예산 5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외된 사업, 즉 수해 방지나 복구 사업 등 긴급 사업 등에 적용된다.

지리산댐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홍수 피해로 8명의 사상자와 주택 및 농경지 침수를 근거로 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는 하천보다는 산사태에 의해 발생했고, 현재 추진되는 댐은 피해 지역보다 하류 지역에 위치해 실제 효과를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지리산 댐은 홍수 조절용 댐이라고하지만 연중 9만 톤 이상을 저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사실상 다목적댐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참고로 홍수조절 전용 댐인 평화의 댐과 한탄강 댐의 경우 자연 유하량을 제외하고는 평상 시에는 담수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댐을 평시 담수 형태로 계획하는 것은 꼼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부산 물 공급을 위한 남강댐 수위상승계획을 위한 '용수확보용 지리산댐 건설 방안'이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되자 '홍수조절(전)용 지리산댐 건설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밝혀 듯이 연중 9만 톤의 저수량으로 남강댐의 부족분을 채워 부산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됐다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려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을 감추려는 술수일 뿐이다.

### – 고운동 계곡에 이어 용유담이 사라지면

90년 대 초, 지리산 양수발전댐 건설을 위해 고운동 계곡이 사라졌다. 가수 한돌은 고운동 계곡의 달빛 풍광을 "마음의 옷을 벗고 달빛으로 몸 씻으니, 설익은 외로움이 예쁜 꽃이 되는구나, 해맑은 꽃내음을 한 사발 마시고 나니, 물젖은 눈가에 달빛이 내려앉는구나"라고 읊조렸다.

이어 "고운동 계곡이 잠긴다네, 고운동 달빛이 사라진다네, 꽃들의 희망도 잠기겠지, 새들도 말없이 떠나가겠지"라는 노랫말로 양수발전댐으로 수장된 고운동 계곡을 아픔을 노래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또다시 지리산에 댐이 들어선다고 한다

###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1. 요즘 심상찮게 들려오는 소식이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우는 밍크고래를 포획했는다 뉴스이다..우리지역 돌산에서도 자주 둘려온다.. 일부러 잡은게 아니라 고기잡는 그물에 걸려 죽은거라고.. 수산자원을 보호한다고 불법어업을 근절한다고 하지만 정치망은줄어들기는 커녕 늘어가는 현실 우리가 보호해야할고래가 이렇게 잡으려 하지않아도 날마다 그물에 걸려서죽어만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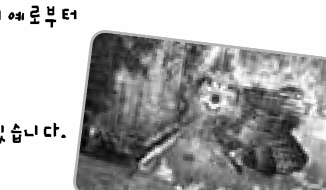
2.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물고기에도 이상한 흔적이 나타난다..몸에 파래가 붙어서자라다니..이런 현상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

1. 5/20일 돌산앞바다 정치망에서 잡힌 밍크고래 그물에 걸린 흔적이 남아있다..

2. 5/20 금오도 초포마을앞바다에서..

### 김혜진의 자연이야기

"부엉 부엉새가 우는 밤~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수리부엉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부엉이로 한국 전역에서 번식하는 텃새입니다.
수리부엉이의 뛰어난 시력과 청력으로 한밤의 제왕답게 사냥의 명수이죠!!
그런데, 서식지, 월동지, 번식지가 파괴 되고, 오염된 먹이 등의 이유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멸종위기동물2급 이며 천연기념물 제324-2호로 지정 보호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주로 꿩, 산토끼, 집쥐, 개구리, 뱀, 도마뱀등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하여, 개체수 조절에 큰 역할을 합니다.
나무구멍 속에 꿩 토끼등의 먹이를 저장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부재라는 별명이 있지요.
서양에서는 지혜의 상징이라네요.
부엉~부엉~ 우는 귀한 수리부엉이 녀석이 여수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수에 살고 있었으면 합니다.



2012. 5. 5 여수